청소년 '척추측만증·거북목' 조기 발굴

강북구, 초교 5학년·중학교 2학년 학교 방문검진

정밀진단 후 운동·교정방법 안내… 비대면 상담도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스마트폰 사용 증가와 학습 환경 변화로 청소년 척추질환이 늘어남에 따라 '2026년 척추측만증·거북목 학교 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지역내 검진 결과 척추측만증 유병률은 6.38%, 거북목 유병은 1.57%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성장기 학생들의 척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올바른 신체 발달을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검진은 전문 검진 인력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역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실시된다.

검진은 단계별로 진행되며, 척추측만증의 경우 1차로 등심내 검사를 통해 측만 각도 5도 이상인 학생을 선별한다. 선별된 학생들은 2차 X-선 촬영을 통해 정밀 진단을 받는다.

거북목 검진은 테블린 장비를 활용한 넥체커 검사로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이상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정면·측면·후면 자세를 촬영하는 2차 쯤체커 검사를 통해 상태를 면밀히 분석한다.

구는 검진 이후 학생 개인별 검진 결과지를 제공하고, 운동 영상과 교정 방법을 안내해 일상생활 속 자세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 소견이 있는 학생에게는 인터넷 진료 상담과 카카오 채널을 통한 상담도 제공한다.

이순희 구청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 상태를 조기에 인지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2026 상반기 통합운영학교 정책지원협의회·실무담당자협의회'가 진행 중인 모습.

통합운영학교 교육·운영 모델 구체화

경기도교육청, 정책지원協서 제안과제 논의

업무시스템·통합회계·교직원 정원 기준 모색

경기도교육청이 13~14일 양일간 '2026 상반기 통합운영학교 정책지원협의회·실무담당자협의회'를 개최했다.

통합운영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 교원 등을 통합 운영하는 학교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 최다 23교의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7년 3월 2개 학교가 추가 개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남부청사에서 열린 협의회는 통합운영학교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현장 제안 과제를 바탕으로 ▲부서 간 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 ▲통합운영학교의 어려움 지원 등을 위해 마련했다.

앞서 13일 개최한 정책지원협의회에는 홍정표 제2부교육감 주관으로 정책지원협의체 부서장 등 20개 부서에서 2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요 안건별 현황과 제안 내용을 공유하고 부서별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실제적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메신저 조직도 통합 ▲업무시스템 개선 ▲통합회계 운영 방안 ▲교직원 인력 배치 및 정원 기준 조정 ▲설립 단계 통합운영학교 모델 정교화 등 인사 및 행·재정 전반에 걸친 과제가 포함됐다. 또한 초·중·고 통합 교육과정 설계 지원, 교직원 연수 운영 등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도 함께 논의했다.

이어 14일에는 20개 부서의 실무담당자가 참여한 협의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이 시간에는 앞서 정책지원협의회에서 논의된 과제의 세부 실행 방안과 추진 일정 등을 구체화하며 실제적 논의를 이어갔다.

도교육청은 협의회 이후 교무학사 및 학교회계 통합 운영 사례와 질의응답(Q&A) 등을 포함한 '통합운영학교 관리·운영 도움자료'를 현행화하고 오는 6월 도내 통합운영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수원=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직접 실습하며 배우는 '로봇코딩' 개강

구로구, 초등생 대상 4기 운영

학년별 3개 과정 밀착형 지도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지역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차 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구로 미래인재 로봇코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4차 산업 관련 교육시설이 부족해 체험학습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항동 등 일부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역내 초등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총 4기에 걸쳐 운영된다. 1기는 4월, 2·3기는 8월, 4기는 10월에 진행되며, 장소는 항동 주민센터(1·3·4기)와 구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2기)다.

프로그램은 학년별 발달 수준에 맞춰 3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1·2학년은 '카미봇'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 코딩 개념을 익히고 로봇 조작을 체험하며, ▲3·4학년은 '큐브로이드' 프로그램으로 블록 코딩을 통한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5·6학년은 '레고 스파이크' 프로그램을 통해 센서와 모터 기반의 문제 해결형 코딩을 학습한다.

수업은 매회 2시간씩 총 4회(총 8시간)에 걸쳐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기수별 15명 소수정예로 운영해 강사와 학생 간 밀착 지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선한이웃 1촌' 1인가구 복지안전망 구축

종로구, 사업단 구성… 주민간 관계형성·돌봄

주 2회 안부 확인… 산책·운동·밥 친구 활동도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1인 가구의 고립을 예방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선한이웃 1촌 맺기' 사업을 중심으로 종로형 복지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구는 1인가구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간 자발적 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일상 속 돌봄이 작동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에 매진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선한이웃 종로 1촌 맺기 사업단 구성 ▲주민 안부망 체계 구축 ▲1촌 공동체 서비스 지원 ▲마음을 잇는 고시원, 이웃 소통의 날 운영 ▲스마트 안부시스템 및 누리소통망(SNS) 기반 소통이 있다.

먼저, 복지관, 쪽방상담소, 동네 단골가게, 아파트 관리사무소, 종교기관,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등 민간 사업단을 꾸려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확대 위촉해 생활권에서 이웃을 살피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들은 주 2회 이상 전화, 방문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동네 산책이나 운동에 함께하며 밖 친구 등이 돼 상호 고독감을 완화한다.

카카오톡 기반 위기가구 신고 채널 '종로 선한이웃'과 '1인 가구 전담 콜센터 '1104'를 운영해 위기 상황을 신속히 포착하고 누구나 손쉽게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콜센터 '1104'는 한 분 한분 공들여 살피겠다는 구의 의지를 담은 번호다.

또 단전, 단수 포함 빅데이터 활용 조사로 시작해 경찰 신고로 연결되는 '발굴·연결·관계 형성·모니터링' 4단계 지원체계를 도입해 사각지대를 관리한다.

고립 위험이 높은 가구를 위한 동별 특화사업 역시 추진한다. 반찬 나눔부터 이미용 나들이 지원, 건강음료와 밀키트 배달, 노인 생일잔치 개최 등 다양하다.

지역내 187곳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마음을 잇는 고시원, 이웃 소통의 날'도 운영한다. 고시원 관리자와의 간담회 개최, 정보부늬(QR)를 통한 주거·취업·건강 상담 서비스 제공 및 1인 가구 지원 정책 안내를 병행해 일상생활 개선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동시에 지원한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임산부 건강출산 풀케어 시스템 가동

홍성군, 꾸밈·요가등 4종 운영

산후우울 예방·정서 안정 지원

충남 홍성군보건소는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2026년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며 지역 임산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건강교실은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임산부의 신체 건강 관리와 산전·산후 우울 예방,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임산부 건강교실은 ▲꾸밈교실 ▲요가교실 ▲마음교실 ▲모유수유교실 등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임산부의 신체 건강 관리와 정서적 안정, 출산 준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먼저 꾸밈교실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총 8회기로 운영되며 산전·산후 마사지와 미용 지원을 통해 임신 중 발생하는 부종과 통증 완화를 돕고 임산부의 활기찬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요가교실은 1기(4~7월)와 2기(8~11월)로 나뉘 매주 1회, 기수당 8회기씩 진행된다.

마음교실은 하반기 중 층층남도 온라인 교육 플랫폼 '잇길배움터'를 통해 진행되며 교육 이후 개별 검사를 통해 우울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임산부는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모유수유교실은 전문가를 초빙해 모유수유 방법과 유방 관리 등 실습 중심 교육으로 진행되며 오는 5월과 10월 두 차례 운영될 예정이다.

홍성=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동작수학놀이터' 운영 확대

區, 일요일 추가 주 6일 개방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구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근 '동작수학놀이터'의 일요일 운영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관한 동작수학놀이터(사당로17길 4)는 수학 체험과 놀이를 접목한 공간으로 올해 3월 기준 누적 방문객 2711명을 기록했다.

구는 그동안 평일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가정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일요일 운영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화~토요일 운영 체계에서 화~일요일까지 범위를 확대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동작수학놀이터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월요일과 공휴일은 정기 휴관한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홀몸노인에 '봄 드림' 우울 해소 꾸러미

광진구, 104명 4주 프로 제공

새싹 키우기·색칠북 활동 지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홀몸노인의 건강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봄 드림(Dream)'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노인의 신체와 정서 건강을 함께 돌보는 '봄 드림(Dream)'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2개월간 운영에 들어간다.

구에 따르면 프로그램 대상은 동 방문간호사가 우울 선별검사를 통해 발굴한 우울·자살 위험군 홀몸노인 총 104명(동별 4~8명)으로, 운영은 대상자의 상황에 맞춰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4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참여 노인에게는 새싹 키우기 키트와 색칠북 세트 등으로 구성된 '봄 드림 꾸러미'를 제공한다. 이후 4주 동안 방문간호사가 주 1회 이상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과제 수행을 확인하고, 건강 상담과 말벗 활동을 함께 지원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프로그램은 ▲매일 산책하기 ▲색칠북 활동 ▲새싹 키우기 등 신체활동과 정서활동을 균형 있게 운영하며, 마지막 4주차에는 직접 키운 새싹으로 '나를 위한 밥상 차리기'와 '나에게 칭찬하기'를 실천해 자존감 향상을 돕는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도봉구, 최대 5000만원 보장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를 이용하는 주민이다.

보장 내용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3자(대물·대인)의 배상책임으로, 사고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아울러 사고로 인한 형사재판 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고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간추린 뉴스

업무 협약식에서 류병곤 안양서중학교장, 정옥란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은미 안양부흥중학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실천학교 2곳과 협약

청소년 봉사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가 '마을 중심의 자기주도형 봉사'라는 새로운 해법을 내놨다.

15일 안양시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사랑뜰에서 안양서중학교 및 안양부흥중학교와 '청소년 자원봉사 실천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옥란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해 류병곤 안양서중학교장, 이은미 안양부흥중학교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진로 탐색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 연계 ▲지역 사회 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주요 프로그램인 '우리마을 탄소중립 실험실 리빙랩'은 시민 활동가를 중심으로 지역 환경 문제의 관찰에서 해결 과정으로 나아가는 참여형 실천 모델이다.

안양=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금천구,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배부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26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제작·배부한다고 밝혔다.

안내책자는 임신·출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구에 따르면 책자에는 생애주기별 193개, 대상자별 87개의 복지서비스가 수록됐다. 특히, 2006년 새롭게 도입되는 '금천 통합돌봄 지원사업', '그냥드림', '발달장애인 배상책인 보험 가입 지원' 등 주요 정책을 포함해 변화된 복지 정보를 상세히 담았다.

올해부터는 기존 종이책자 중심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능을 접목해 활용도를 높였다.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책을 넘기듯 연람할 수 있는 전자책(e-book)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민들은 구 홈페이지(우리금천—e-꿋간)와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구리시 인창도서관, AI 코딩스쿨 22일 개강

경기 구리시 인창도서관은 오는 22일부터 메이커스페이스 '꿈꾸는 공작소'에서 지역내 특수학급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6 청소년 행복 AI 코딩스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복AI코딩스쿨은 잠애 청소년의 학습 능력을 고려한 특화 교육과정으로, SK텔레콤과 하나금융그룹의 지원으로 (사)소프트웨어 교육혁신 센터가 주관하는 민관협력 교육사업이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 구성됐다. 고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디지털 탐험' 과정은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

또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알버트와 떠나는 해외여행' 과정은 코딩 로봇을 활용한 체험형 학습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오는 22일부터 5월27일까지 총 10회차(20시간)로 운영된다.

구리=최광대 기자 ckd@siminilbo.co.kr

아산시 중앙도서관, 18일 느린학습자 문해력 특강

충남 아산시 중앙도서관은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중앙도서관 4층 강당에서 '느린학습자 문해력 특강'을 운영한다.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학습장애·경계선 지능·ADHD 등으로 배움의 속도가 더디고 한 번에 일정 분량 이상을 습득하기 어려운 이들을 통칭한다.

느린학습자 아이들은 읽고 쓰기 과정에서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며 학습 자신감을 잃기 쉬운데 이번 특강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자녀를 둔 부모와 관심 있는 아산 시민 70명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강의는 학습치료 및 부모교육 전문가 김나형 강사가 맡는다.

느린학습자를 위한 연구소 더공감S랩 소장이자 느린학습자 자녀의 양육자이기도 한 김 강사는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 ADHD를 위한 문해력 수업'(2025)의 저자로, ▲느린학습자가 보이는 읽고 쓰기의 특징 ▲가정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도 원칙 6가지 ▲느린학습자 자녀를 위한 '생활 문해력' 솔루션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산=박명수 기자 pms@siminilbo.co.kr

오산시, '청소년 범죄 예방' 등굣길 캠페인

경기 오산시는 지난 14일 마루고등학교에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오산지구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범죄 예방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등굣길 선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시를 중심으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오산지구위원회(오산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자녀안심회, 오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오산도시공사, 오산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민·관·경 합동 캠페인으로 추진됐다.

특히 신설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오산경찰서와, 지난 7일 오산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오산도시공사가 협약 이후 참여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박,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과 함께 흡연·음주 등 청소년 일탈행위 근절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과 홍보를 실시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